

제 1 집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신채호 유영 등 현대시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1집

신채호 유영 등 현대시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편

연변인민출판사

2008년 12월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최순란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中国朝鲜族文学史料全集. 第1卷: 朝鲜文 / 崔三龙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2
ISBN 978-7-5449-0461-2

I. 中… II. 崔…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作品综合
集-中国-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181922号

中国朝鲜族文学史料全集. 第1卷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960×640 1/16 印张: 48.75 字数: 67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461-2 (民文)

版次: 2008年12月第1版 2008年12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8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편찬위원회

- 고 문: 김병민
- 기 획: 리성권
- 명예주필: 권철, 김동훈
- 주 필: 허휘훈

- 편찬위원: (가나다순)

김경훈(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문학박사)
김동훈(전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교수)
김호웅(연변대학 조선-한국학연구중심 주임, 교수,
문학박사)
김운일(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권철(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고문, 교수)
리광일(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문학박사)
전성호(전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연구원)
채미화(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원장, 교수, 문
학박사)
최문식(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소장, 교수)
최삼룡(전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연구원)
허경진(한국 연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휘훈(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교수, 문학
박사)

제1집

신채호 유영 등 현대시

책임편찬: 최삼룡

편 찬 자: 최삼룡, 권철, 리범수

간행사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탁월한 저력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해냈다. 그 풍부한 문화유산에는 삶의 슬픔과 지혜, 역사를 헤쳐나가는 선조의 힘이 숨배여있다. 하기에 우리의 문화유산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난세기 문학사료는 소중한것이고 두고두고 읽어보아야할 보전(寶典)으로 남게 된다.

과경(跨境)민족으로서의 중국 조선민족은 19세기 후반기 이래로 수차의 문화적격변의 시대를 살아왔다. 이른바 개화기의 격류속에서는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사이의 갈등, 한문문학과 국문문학간의 교체를 경험했고 식민지시대에는 국문문학의 문체혁신과 일제에 의해 책동된 전통문화의 쇠퇴, 말살이라는 시련을 겪기에 이르렀다. 이런 변화와 역경 속에서도 이 땅에서 류이민 혹은 정착민으로 생활해온 우리 겨레의 지조있는 애국문인들은 결코 붓대를 던지지 않았다. 류린석, 김택영, 신규식, 신채호, 안중근, 이상룡, 김정규, 김소래, 최서해, 럽상섭, 주요섭, 최상덕, 강경애, 현경준, 김창걸, 안수길, 박영준, 황건, 김조규, 윤동주, 박팔양, 리륙사, 함형수, 리학성, 천청송, 김학철, 윤해영, 채택룡, 설인 등 헤아릴수없이 많은 문학도와 시인, 작가들이 바로 필설로써 그 시대를 증언해온 대표적인 지성인들이였다. 그들중에는 고국을 떠나 갈바람에 홀날리는 락엽마냥 정처없이 떠돌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와 허허 넓은 만주벌판에서

간도아리랑을 부른 망향시인이 있었고 하늬바람 불어치는 산해관을 넘어 북경, 서안, 상해, 무한 등 천년고도에 떠돌이로 남아 언론매체를 빌어 “천고”를 울리고 “진단”을 노래하고 청구의 “광명”을 만방에 호소한 청년전위가 있었는가 하면 백산, 흑수, 송료, 제로, 태항, 중원의 고전장에서 용마일생을 수놓아가며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도 있었으며 러순, 나가사끼, 후고오까의 감옥에서 단지혈맹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절단해가면서도 끝까지 혁명의 지조를 지켜왔거나 끝내는 “한점 부끄럼없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민족의 제단앞에 바친 암흑기의 푸른 별들도 있었다. 그들은 문자에 앞서 온몸으로 지탱해온 삶 그 자체가 더 고결하고 값진것으로 여겨왔던것이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가꾸어온 문화의 숲은 험결찬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부단히 충전시켜주는 불멸의 혈맥, 끈질긴 생명력의 고동으로 무성하게 자라고있으며 영광과 비애의 굴곡, 흥망과 성쇠의 기복이 교차되는 수많은 력사주체의 명멸을 간직한채 굳건하고 강인한 기백으로 오늘날까지 민족의 정기를 면면히 이어주고있다.

그들이 남긴 풍부한 문학유산은 그동안 중외(中外)학자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발굴연구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를 둔것으로서 그 진면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조선족과 해방전 재중 한인, 조선인들의 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 출판하는것은 정체적인 민족문학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수 없다. 그들이 남긴 문학자료는 지금도 중국 각지와 해외의 여러 도서관, 박물관, 당안관에 신문, 잡지, 일기, 필사본, 프린트본, 활자본 등 형식으로 흩어져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본 전집은 선배들이 중국땅에 남긴 문학자료들을 집대성하여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발양하며 문학, 언어, 력사,

민속, 언론, 사회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학계 인사들에게 21세기 중국조선민족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계통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있다.

중국조선민족문화의 진수를 정리, 간행하기 위한 계획이나 준비작업은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의 창립과 더불어 20세기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권철교수를 비롯한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관계 선배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벌써 재중조선인 문학자료수집에 착수하였고 1990년에는 권철, 조성일, 최삼룡, 김동훈 등 네 연구원의 공동집필로 된 《중국조선족문학사》를 공개출판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는 한국 숭실대학교 인문대학과의 공동연구과제로서 소재영, 권철, 김동훈, 조규익 교수를 중심으로 집필한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를 펴냈다. 같은 시기에 김영덕, 최문식 교수를 비롯한 연변대학 고적연구소에서는 《류린석전집》, 《김택영전집》, 《윤동주유고집》, 《한양가》, 《연변조사실록》 등 중국지역에서 발굴, 정리한 17권의 민족고전을 출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학현장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두 연구소산하의 수십명 연구원들은 연변의 각 현시, 북경의 백림사, 상해의 서가회, 남경의 룡반리, 심양시 서류관, 할빈, 대련, 서안, 남통 도서관, 박물관 등 중국 국내 수백곳의 자료관을 누비면서 해방전 우리 민족의 흩어진 문학자료들이 게재되어있는 《천고》, 《진단》, 《독립신문》, 《민성보》, 《북향》, 《만선일보》, 《카톨릭소년》, 《광복》, 《신한청년》, 《조선의용대통신》, 《한민》, 《연변문화》 등 신문과 잡지 그리고 지난 세기초부터 이 땅에서 류전되었던 《백두산민담》, 《장백산강강지략》, 《초등소학수신용우화집》과 《싸트는 대지》, 《재만조선인시집》, 《혈해지창》 등 최초의 소설집, 시집 및 극본들을 속속 발굴하였으며 무려 1500만자에 달하는 작가문학자료와 800여수의

민요, 2000여편의 전설과 민담을 수집하였다. 그들은 하늘을 비상하는 “나비”가 아니라 발로 땅을 기여다니는 “지네”와 같이 지나간 력사와 문화현장에 뛰어들어 문학현상 자체를 자기의 피부로 촉감하고 확인함으로써 오늘의 이 방대한 민족문화사료전집의 탄생을 준비하였던것이다.

본 전집의 출간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첫째, 본 전집에는 중국 조선족작가와 재중 한인, 조선인 작가들이 건국(1949년)이전에 창작한 모든 시, 소설, 일반산문, 극작품 등 일체의 문예작품들을 수록한다.

둘째, 우리 문학의 세가지 큰 갈래인 조선문문학, 한문문학, 구비문학을 통해 력사적으로 이룩한 모든 양식을 함께 수록하도록 한다. 건국전에 창작된 작품을 30권에 나누어 일차적으로 간행하고 이를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사료전집으로 되게 한다.

셋째, 구비문학작품은 건국전에 수집된것과 건국후에 수집된것을 망라하며 그 내용이 해방전에 이미 구전으로 전승되었음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1차 간행본에 포함시킨다.

넷째, 언어상으로나 력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부 원전은 원전과 현대역을 동시에 수록하려 한다. 현대역을 통하여 한문과 원전의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정확한 원전의 제시로 그 연구의 자료가 되게 하려 한다.

다섯째, 건국전의 작가문학은 현대시, 한시, 소설, 산문, 희곡 순으로 배열하고 구비문학은 민요, 전설, 민담 순으로 배열한다. 건국이후의 작품은 2차적으로 그 출간을 계획해보려 한다.

1차 간행에 교부된 작품집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집-제3집 시(조선문)

제4집-제5집 한시
제6집-제12집 소설
제13집-제15집 산문
제16집 희곡
제17집 민요
제18집 문헌설화
제19집-제20집 전설
제21집-제29집 민담
제30집 별책(색인)

끝으로 본 전집이 편집, 출판되는 동안 관심있는 모든분들의
협력과 질정을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업에 동참해주신
편찬위원, 책임편자, 역주자 여러분과 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어휘훈
연변인민출판사 사장 리성권

2008년 8월 15일

일러두기

이 전집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엮었다.

1. 중국조선족의 기록, 구비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재중 한인(漢人), 조선인이 중국지역에서 창작한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2. 20세기 전반기에 창작, 발표된 문학작품을 일차적선제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3. 전집 각권의 출판은 현대시, 한시, 소설, 산문, 희곡, 민요, 전설, 민담 순으로 배열하였다.

4. 한시와 기타 한문(漢文)으로 씌여진 원전은 매편마다 원문을 앞에 싣고 역문을 뒤에 함께 수록하여 상호 참조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5. 원전에 나오는 일부 지명, 인명, 전고, 방언과 알기 어려운 글자, 루락, 오기 등에 대해 필요한 주를 달았다.

주석표기는 원문(혹은 역문)에 번호를 붙이고 해당 면 하단에 각주(脚注)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6. 고한문 원전은 번체자로 표기하고 리해가 어려운 한자어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넣어 병기하였다.

7.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는 중국에서의 현행 조선말 규범원칙을 따르되 어학적, 민족적 가치가 높은 해방전 원전은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8. 이 전집에서 사용한 주요부호는 다음과 같다.

- 1) (): 음이 같은 한자를 병기함.
- 2) []: 음은 다르나 뜻이 같을 때나 혹은 풀이한 한문을 병기함.
- 3) 《 》: 책, 신문, 잡지명을 나타냄.
- 4) “ ”: 작품명, 대화나 인용을 나타냄.
- 5) < ? >: 불확실한 경우를 나타냄.
- 6) □: 원전 또는 원문에서 누락된 문자를 나타냄.
- 7) 주석은 ①, ②로 표시하여 해당 면 하단에 표기함.

중국 조선민족문화 발전개관

(총론)

[권철] 김동훈

중국의 조선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는 선진민족이다. 지금 근 200만에 달하는 중국의 조선민족은 주로 길림, 료녕, 흑룡강 세개 성에 분포되어있다.

력사적기록에 의하면 조선민족의 선조들은 일찍 조선반도와 동북 지역에서 오랜 력사시기에 걸쳐 생활하면서 부동한 사회발전단계를 거쳤다. 그러다가 장기간의 력사적변천과정에서 대륙에 거주하던 그중의 대부분이 조선반도로 남천하였으며 남은 일부분은 기타 민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점차 동화되었다. 그후 조선민족이 다시 중국 동북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한것은 17세기 초엽부터이고 이주민이 보다 많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한것은 19세기 중엽부터였다. 이주하여온 조선민족은 이 고장 기타 민족들과 함께 중국의 동북변강을 개척하고 건설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고 봉건통치제도를 뒤엎는 투쟁에 참가하였다. 이렇게 조선민족은 평탄치 않은 력사적행정에서 자기의 피땀으로 중화민족의 력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중국의 조선민족과 조선반도의 조선인민은 본시 동일민족으로서 장기간 부동한 력사발전단계를 함께 걸어오면서 힘써 자기의 문학을 가꾸어 풍부한 문학유산을 남겨놓았다. 중국 조선민족은 18세기, 보다 분명하게는 19세기말로부터 본 민족의

문화전통과 문학유산에 토대하여 중국 조선민족의 생활과 밀착된 자기나름의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 조선민족문학은 자기 발전의 전반 행정에서 조선인민과 동일민족으로서의 공통한 지향, 장기적인 력사적연계, 그가 처한 지리적환경 등의 특수한 인연관계로 하여 조선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뿐만아니라 때로는 함께 문학창작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밀착된 력사과정에서 취득한 풍부한 문학성과들은 이미 조선민족의 공통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중국 조선민족문학은 또한 중국에서의 한족을 위시한 다른 민족의 문학과 세계 진보적문학의 우수한 성과들을 부단히 섭취하면서 민족적특색을 보다 질게 구현한 독자적인 문학으로 발전하였다.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일부 문학자료와 이미 취득한 연구성과들에 의거하여 19세기 말엽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조선민족문학발전의 행적과 그 과정에서 취득한 문학성과들을 근대와 현대 그리고 당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료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19세기 중엽으로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황막한 중국 동북지방에 들어온후 기타 민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민족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초기 이주민중의 절대 대부분이 극빈상태에 처한 농민들이였고 본 민족의 문필가와 출판기관을 가지지 못하는 등 제반여건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학활동을 발랄하게 전개할수 없었다. 그뒤 20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사회정치적환경에서 일어난 조선애국 문화계몽운동의 영향과 흥기된 문화교육사업에 힘입어 조선민

족의 문학활동도 날로 심입, 전개되었다.

이 시기 조선민족문학의 새로운 성격적특징은 우선 그 주제내용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중세기적인 권위와 인습을 타파하며 “민권옹호”와 “자유평등”, “문명개화”를 주장하는 자산계급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데 있다.

이 시기 문학의 새로운 성격적특징은 또한 시대의 전초에 선 신형의 전형적형상을 묘사한데서 집약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이때 작품의 중심에 등장한 긍정적주인공들은 많은 경우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에 떨쳐나선 항일지사들이거나 중세기적인 몽매와 무지를 반대하고 자유와 평등, 민권옹호, 문명개화 등의 근대적의식을 고취한 선각자들이었다.

이 시기 문학실천에서는 사회의 초미의 문제에 중시를 돌리고 민족적현실에 토대한 생활의 논리와 언문일치원칙 등에 쫓아 인민대중의 시대적 의식과 지향을 진실하게 묘사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있는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조선민족의 사상미학적 수요에 따라 일련의 새로운 문학형식이 산생되었으며 기존의 문학형태들도 새로운 내용을 담으면서 계속 발전하였다.

근대 조선족문학에 있어서 시가문학은 다른 장르보다 더 풍부한 성과를 거둔 분야이다. 그중에서도 창가가 아주 많이 창작, 보급되었으며 또한 보다 큰 영향력을 산생하였다. 근대적인 반일문화계몽운동의 조류속에서 성행된 창가는 민족의 독립적념원과 개화의 의지를 대변하면서 시대적사조를 여러모로 구가하였다.

이제 이 시기에 널리 불렸던 창가들을 그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중세기적 몽매와 질곡에서 한시 빨리 벗어나 날로 문명개화하는 시대적조류에 따를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것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창가 “학도가”, “권학가”, “수하가”와 각지 “사립학교가”, 그리고 녀성해방, 남녀평등, 혼인자유 등을 노래한 “동심가”, “자유가”, “녀자는 근본”, “사랑의 축복” 등이 그 레증으로 된다.

이 시기에는 또 비운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고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떨쳐나설것을 호소한 창가가 널리 보급되었다. 창가 “3월가”, “독립운동가”, “복수설치가”, “절개가”, “작대가”, “동원가”, “소년모험행진가” 등과 “용진가”를 비롯한 여러수의 “독립군가”를 그 대표적작품으로 들수 있다.

이밖에 불우한 운명에 허덕이는 조선민족의 고국상실과 망향의 한을 달랜 “망향가”, “도강가”, “사향곡”, “나비가” 등도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보다 넓은 공명을 일으켰다.

이상에서 밝혔듯이 이 시기 창가는 시대적조류에 따르면서 민족독립과 개화의식을 신속하고도 열렬히 선양함으로써 당시의 문화계몽운동과 반일투쟁에 유력하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그 예술형식과 기법에서도 시대적사조와 조선민족의 심미적 정서에 맞는 참신한 형식과 표현수법들을 도입함으로써 조선민족시가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창가의 창작보급과 더불어 시조와 한문 시도 적지 않게 창작되었고 현대자유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작품들이 인멸되다보니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은 많지 못하다. 그리고 현존하는 일부 시편들은 당시의 우국지사거나 진보적인 지식인들에 의하여 지어진것으로 추단할수 있으나 그 작자들을 똑똑히 밝힐수는 없다.

이 시기에 창작된 시조작품중 현존하는것으로는 “류화절(柳花節)”, “청년아”, “장부사”, “갑중검”, “벽공월(碧空月)”, “지사음” 등이 있다. 이런 시조에서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작자들

의 깊은 심려와 절절한 념원을 감명 깊게 토로하고있다. 그중 시조 “류화절”에서는 역사적전환기의 거세찬 시대적조류를 봄 소식에 비기면서 봉건적몽매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는 겨레의 현 상태를 개탄하며 하루속히 개화발전의 길로 나갈것을 간곡히 바라는 정을 감명 깊게 읊조리고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전야에 지은것으로 추정되는 “갑중검”, “장부사”와 같은 시편들은 고시조의 풍격을 본받아 창작한 작품들이다. 민족적향기가 짙은 이런 시조들에서는 정중하고도 심오한 서정세계를 통하여 민족의 정기를 한몸에 지닌 우국지사들의 충정과 비장한 결의를 읽을수 있다.

이 시기에 한문시도 많이 창작되였다. 한문시 “월강곡”과 “기다림”¹⁾은 청조정부가 봉금정책을 엄하게 실행하던 시기에 중국으로 이주해오던 우리 겨레들의 비참한 처지를 읊조린 의의 있는 시편이다. 이런 시편들에서는 19세기 리조봉건통치의 흑정과 계속되는 기근에 못이겨 살길을 찾아 강을 건너간 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혹여나 님의 신변에 불상사나 생기지 않았나 하여 애간장을 태우는 농촌녀인의 순정을 절절하게 토로하고있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명한 시인 김택영, 신규식 등에 의하여 한문시창작이 전개되였을뿐만아니라 반일투사들과 초야에 묻힌 문필가들도 한문시를 적지 않게 지었다.

저명한 시인 김택영(1850-1927)은 훌륭한 역사학자이고 열렬한 반일계몽사상가이며 근대 조선민족문학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탁월한 문호이다. 그는 한문시창작에서 출중한 문학적재예를 보여주었을뿐만아니라 전기, 수필 등 산문창작과 선진적 사실주의 미학리론의 연구 그리고 조선문학의 성

1) 이 두수의 시는 한문시이다. 1910년대에 조선문으로 번역되어 사립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였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원문을 찾지 못하고있다.